

일회용품 없애기, 대학생들이 나섰다

조선대 '시민 맛' 팀 프로젝트 진행 먹다 남은 음료와 컵 처리하는 액체 분리 전용 쓰레기통 설치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플라스틱 빨대 사용 자제 캠페인

"자연을 훼손하는 테이크 아웃(Take out) 음료컵 등 각종 일회용 제품을 무분별하게 버리는 게 안타까워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인 테이크 아웃용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없애기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루 만이라도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지내보자'고 제안한 데 이어 유럽 연합(EU)도 2021년까지 플라스틱 테이크 아웃 컵, 빨대 등 10여 종의 관련 제품에 대해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택수(27·3학년), 박진영(26·3학년), 황소미(여·27·4학년), 윤다조(여·22·3학년)씨는 조선대

기조교육대학에서 진행하는 2018학년도 학생자율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맛(시민 참여를 통해 진정한 시민의 맛을 알자)'이라는 팀을 구성하고, 대학교 주변 일회용 제품 없애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팀은 가장 먼저 전남대학교 인근 옛 현철의 집 앞 버스정류장에 배치된 쓰레기통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먹고 남은 음료와 음료컵을 분리해 버릴 수 있는 액체 분리 전용 쓰레기통으로 개조한 것이다. 쓰레기통 상단 옆에 페트병의 상단부분을 잘라 갈때기 형태로 만들어 음료가 하수구로 곧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호스를 연결했다. 음료 컵에 담긴 내용물을 갈때기에 부은 뒤 테이크 아웃 컵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배려한 장치다.

조선대생인데도 첫 프로젝트 수행지역을 전남대 후문으로 정한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테이크 아웃 컵이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팀원 4명 모두 전남대 주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택수 팀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테이크 아웃 컵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전남대 후문 버스정류장에 놓인 액체 분리 전용 쓰레기통.

이 있을까 고민하다 음료 분리 쓰레기통 설치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테이크 아웃 컵을 버리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일회용컵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빨대 등 일회용품, 특히 플라스틱 1회용품을 줄이는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액체 분리 전용 쓰레기통 설치 프로젝트와 함께 대학교 내 매점과 주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일회용 제품 사용 제한 협약 등도 맺을 계획이다.

팀원인 황소미씨는 "테이크 아웃 컵과 함께 무분별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학교 측에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방법 등을 건의해 캠퍼스 내에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인근 상점 등에도 동참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청도 이들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정정기 동구청 환경정소과 과장은 "학생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를 접한 이후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늘 하루 만이라도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지내보자"면서 "유엔(UN)이 선정한 이번 환경의 날 공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대법원 재판 거레' 광주지법 판사 회의 결론 못내고 추후 찬반투표로 의결키로

내일 지법 부장판사·고법 판사 회의 광주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레' 의혹과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는 광주지법 소속 단독판사 9명(전체 14명), 배석판사 28명(전체 30명)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바람직한지, 조사단이 확보한 파일 410개 전체를 공개할지 등을 놓고 열린 토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법판사들은 당초 회의의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를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회의를 중단했다. 또 논의 사항에 대한 찬반, 결의안 채택 여부 등은 추후 투표로 결정하

기로 했다. 투표 개최 시기와 추가 회의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충분한 논의를 더 하자는데 의견이 모여 최종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에는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의, 광주고법 판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법원행정처 관계자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대국민 사과에 이어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담화 이후 각급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이어지면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봉주초 수학여행 버스, 레미콘 트럭과 충돌

임실서...학생 7명 가벼운 부상

5일 오전 9시40분께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삼거리에서 광주봉주초등학교 학생들을 실은 버스와 레미콘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31명 가운데 7명이 찰과상,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고로 버스 앞 유리창이 깨지고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열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컸으나 인명피해가 가벼웠던 것은 학생 전원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버스 운전기와 인솔교사들이 적절한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광주시교육청은 전했다.

트럭과 버스 왼쪽이 부딪힌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운전기와 교사가 이 깨진 앞문 유리창을 통해 학생들을 재빨리 대비시켰고, 출발 전 일일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1박2일 수학여행 일정에서 이틀째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킨 덕분에 큰 부상자 없이 사고가 수습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께 퇴원했고 광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용봉천 일대 방역작업 5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긴급방역반이 운암동 용봉천 일대에서 모기퇴치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교생을 성폭행범 몰아 수백만원 갈취한 4명 검거

고교생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와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청은 "또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한 뒤 성폭행을 했으며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행동대장 정모(20)씨를 구속하고 모질적인 이모(19)군, 김모(17)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양 등은 지난달 16일 새벽0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모 오피스텔로 김모(18)군을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김군이 김양을 강간했다며 협박하고, 합의 명목으로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군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정씨 등은 김군을 불러내 강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합의금으로 450만원을 요구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일행의 계좌에 45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에비츄'·'한남츄' 등 온라인 모욕 글 잇따라 유죄 선고



○온라인에 연예인 등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 장모씨 관련 기사에 "장OO 극혐(극도로 혐오). 면상만 봐도 나온다 장여혐(여성혐오) 나오면 절대 안 볼 거다" 등의 댓글을 달아 장씨를 모욕한 이모(여·4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한 정당의 여성주의자 모임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

서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A씨를 상대로 "에비츄..오.. 진짜 극혐이야" 등의 글을 쓴 김모(여·25)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같은 해 3월에도 같은 채팅방에서 "가지가지지네, 왜 살지 자기(자살을 뜻하는 여성 커뮤니티의 은어)해버리지, 동자 한남츄 제기해"라는 글을 써 A씨를 한차례 더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남츄(한국 남성을 벌레에 비유한 은어)'에서 '츄'는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모욕의 고의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 /연합뉴스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